

증권사 IPO 주관도 '부익부 빈익빈'... 대형사 '독식' 뚜렷

미래에셋, 올해만 12건 IPO 참여 229억 수수료, 점유율 22.67% 삼성 16.08%, 한국투자 11.27% 중소형사, 신규 스펙 상장 노력

〈올해 상위 7곳 증권사가 벌어들인 기업공개(IPO) 딜 수수료〉 (23일 기준)

순위	회사명	수수료(원)	점유율(%)	건수	이자율(BP)
1	미래에셋증권	229억	22.67	12	165.50
2	삼성증권	162억	16.08	11	283.03
3	한국투자증권	113억	11.27	10	125.38
4	대신증권	82억	8.16	7	307.92
5	하나금융투자	78억	7.78	7	339.16
6	NH투자증권	78억	7.16	4	77.67
7	JP모건	46억	4.62	1	65.00

미래에셋증권

대형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주관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IPO 시장 호황이 이어지며 기존 막강했던 시장 지배력이 폭넓은 네트워크와 경험,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더 공고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에스케이아이아이티(SKIET)와 크래프톤을 비롯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것이 대형사 독식 구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중·소형사는 이미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대형사와의 경쟁을 피해 스펙(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 미래에셋 독주...KB 반격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들어 12건의 IPO 딜에 참여하며 229억원의 인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시장 점유율이 22.67%에 달한다. 삼성증권이 162억원(11건·

16.08%)을 벌여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113억원(10건·11.27%), 대신증권 82억원(7건·8.16%) 순으로 수수료 규모가 컸다.

상반기는 미래에셋증권의 완승으로 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빅3'로 불리며 IPO 완좌를 다뤘던 NH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인수 수수료가 78억원에 그치며 한 발짝 뒤쳐진 모양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반기에도 상장 후 시가총액이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의 주관을 차지했다.

이 외에 상반기엔 상위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한화종합화학 등 대어급의 대표주관을 따낸 KB증권의 뒤늦은 반격이 확실시된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수 백 억원대의 인수 수수료를 챙기며 시장 점유율 20%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IPO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수 업무의 수익성 규모도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공모주가 인기를 끌었던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벌었던 인수 수수료는 248억원 수준이었으나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벌써 이에 근접한 상황이다. 통상 대형 IPO에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증권사는 총 공모금액의 0.8% 정도를 인수대가로 받는다. 공모 실적과 기여도 등에 따라 0.2~0.3% 가량의 추가 성과보수도 챙길 수 있다.

◆중·소형사는 스펙으로

상장에 나선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 대형사에 몰리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적정 공모가 논란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공모가 밸류에이션이 조금만 높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발을 뺄 수밖에 없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형사가 진행하던 IPO를 대형사에 뺏기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업의 상장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대형사를 선호하는 것. 대형사는 그동안 쌓아온 트랙레코드(실적) 등이 우호적인 환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형사들은 대형 딜에 입찰제안요청서(REP)조차 넣지 못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자기자본 순위 10위권대 회사 관계자는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딜 수수료 몇 억원 벌자고 추후 주가 하락

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하기 힘들다"며 "반면 대형사들은 대형 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까지도 고려하는 만큼 보다 기업가치 측정에 공격적으로 나서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른 증권사 IPO 하우스 담당자도 "주관 업무를 맡을 경우 신규 계좌 개설로 인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사업, 더 나아가 기관 네트워킹을 활용한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IB)과 각종 글로벌 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중·소형사들은 대형사가 장악한 직상장 주관 대신 신규 스펙 상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 하려는 기업은 이미 정해 놓은 공모규모가 있어서 증권사 규모나 이름 값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모 규모에 따라 충분히 피합병회사의 구미를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선 교보증권이 원바이오젠, 유안타증권이 제이시메디칼을 합병 상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고덕·위례·동탄 등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신도시 아파트 공급 부족에 관심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



'유보라 더크레스트' 오피스텔 투시도.

고덕·위례·동탄 등 신도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돼 주목된다. 이 지역은 '핫플레이스'로 꼽히지만 올해 아파트 공급이 적은 편이다. 아파트 대체 상품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100% 추첨제가 적용돼 가점이 부족한 실수요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이어진 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일원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평균 232.2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분양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64.60대 1)보다 무려 3.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도건설이 오는 7월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유보라 더크레스트'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단지는 59~84㎡, 1116실로 구성되며 상업시설 '고덕 파피에르'도 함께 들어선다. 고덕국제신도시 중심부인 비즈니스콤플렉스타운에 들어서며 도보 10분 거리에 세계 최대 규모 279만㎡의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입주한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과 SRT·KT

X(예정)·수도권 1호선이 정차하는 지체역과도 가깝다.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에서는 W건설이 '송파위례 아피체' 오피스텔을 이달 분양한다. 44·57·59㎡ 3개 타입 총 117실로 공급된다. 거원초, 거원중이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오는 2022년 개교가 예정된 거암초와 거암중, 덕수고, 하남위례도서관 등 교육환경과 장지근린공원, 장지천 수변공원, 남한산성 등이 인접해 있다.

같은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용지 39블록에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를 분양한다. 64~84㎡ 166실로 구성된다. 동탄테크노밸리 중심 입지에 위치하며, 인근 삼성나노시티가 있어 배후수요 확보에 용이하다. 반경 약 1.5km 거리에 SRT 동탄역이 있어 SRT 수서역까지 약 17분에 이동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2층 자양 회의실에서 열린 '고객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행동 실천 서약식'에서 정일문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바른생각·바른행동 실천 서약

사모펀드 전액보상 후속 조치 정일문 사장 등 서약서 서명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 2층 자양 연수실에서 '고객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행동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주 판매책임 사모펀드 전액 보상 발표에 따라 투자자상품관리부를 신설한 후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서약식은 고객의 신뢰 구축을 위한 임직원의 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일문 사장과 임직원 대표 4명이 참석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새로운 경영 방침인 '고객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오프라인 행

사 외에도 한국투자증권 모든 임직원이 온라인을 통해 서약에 동참했다.

실천 서약에는 ▲고객 신뢰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 ▲고객 신뢰에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 ▲금융소비자보호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일문 사장은 "최근 발표한 판매책임 사모펀드 선제적 대응이 내부적으로는 고객 신뢰 방안에 대해 돌아보고 새로운 눈높이에서 실천 과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임직원 모두가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해 오늘의 실천 서약이 내일로 향해 가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미래에셋증권 나스닥 클로징 벨 기념행사 참여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나스닥거래소에서 나스닥 폐장을 알리는 '클로징 벨' 기념행사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클로징 벨 행사는 원격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대 자기자본을 가진 투자은행으로서 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 브로커리지(위탁매매), 투자은행(IB), 연금, 트레이딩, 디지털금융 등 종합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내 최대 자기자본을 가진 금융투자회사"라며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속해 있는 미래에셋그룹은 증권, 자산운용, 보험, 벤처캐피탈 등 금융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투자전문 그룹으로서 끝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성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시아 최상위 투자은행을 뛰어넘어 글로벌 최고수준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회사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준 나스닥과 고객, 투자자,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며 소개를 마무리했다.

로렌 딜라드 나스닥 부회장은 미래에셋증권과의 협업에 대해 "나스닥과 미래에셋증권은 같은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과감한 비전, 혁신 전략, 투자자들의 관심을 염두에 둔 오늘날 혁신금융기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군인공제회

건설투자부문이사 공모

군인공제회가 건설투자부문이사(CIO)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 고 24일 밝혔다.

건설투자부문이사 공개모집 접수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다.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건설사업 분야 실무 및 관리경력 15년 이상과 임원경력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다. 건설사업 신규 투자 발굴과 회원주택사업 용지 확보 및 시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개인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하고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 서류는 우편 제출(마감당일 15시 도착분에 한함) 또는 군인공제회 인사팀에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115@